

간호학생이 콜라주(Collage) 작품으로 구성한 죽음의 의미

김 영 경**·조 계 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은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라 할 수 있다(Hur, 1999). 이는 학생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교육이 학생의 삶에 의미를 주는 좋은 수업이 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개별 혹은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며, 교수-학습자 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으로 전문적 지식에 기반을 둔 사려 깊은 실천(thoughtful practice)으로 정의하고 있다(Seo, 2004). 한편 프로젝트 학습은 관심과 흥미가 끌리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서 학습 내용을 자기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천되고 있다(Hong, 2002).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의료상황이 임종간호에서도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하며 신중하고 현명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교훈적 수업보

다는 창조적이고 체험적 인 수업을 통해 임상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간호교육기관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간호실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창조력을 배양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창조적 학습의 한 방안으로서 예술의 접목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예술의 여러 긍정적인 가치들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로 세상과 대상을 보고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콜라주(신문이나 광고 따위를 짜맞춘 추상적 구성) 학습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각 학생이 임종과 죽음에 관련된 그들의 감정을 형상화(symbolize)하고, 이를 설명함으로써 개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식되는 죽음관점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프로젝트 학습이다. 콜라주 기법은 자신을 개방시키고 심상을 발견, 계발시키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Lim, Hong, & Lim, 2002).

예술이 목시적이든 은유적이든 상징적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그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예술작품은 하나의 상징과 비슷한 표현적 형식이고 의미(meaning)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jokw@cu.ac.kr)

투고일 2005년 10월 24일 심사외뢰일 2005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4일

와 유사한 내용을 소유한다(Ha, 1994). 따라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플라쥬 기법은 개인의 내면에 융화되어 있는 심층의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허무, 절망, 소외, 고독, 상실 등의 단어를 친숙하게 만들고 절대고독의 세계로 이끈다. 그러한 정서들이 심화되어 갈수록 인간들은 점차로 무감각해지면서 반복적인 일상을 거듭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현상도 늘 일상에 존재하나 나와는 상관없이 있는 듯이 있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문제제기이다. 교육이 삶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면, 교육의 범위와 내용 속에 '죽음'이라는 영역을 포함시킬 때 진정으로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Kim, 2002). 특히 휴먼 서비스 학문을 전공하는 간호학생들이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삶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성적 자질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준비될 경우 임종환자를 대할 때 보다 전문가적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숙고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죽음이 삶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곧 죽음 교육이 삶을 교육한다는 의미이자 인간교육을 내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죽음의 정의는 특정 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사회화를 통해 개개인이 해석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한국의 간호학생들이 인식하는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간호학생들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들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종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 시대의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종간호 교육이 당면한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학생들이 플라쥬 작품 활동을 통해 구성해 낸 죽음의 의미를 통해 학생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반영과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간호학 분야 연구에서는 임종간호 교과구성의 요구(Kim, Jo, & Kim, 2005) 및 죽음 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였으며(Park, 1996; Park, & Kim, 1996; Yun, 1999; Lee, 2001; Park, 2001; Beak, Lee, & Kim, 2001; Kim & Lim, 2002) 학

습과정에서 플라쥬 작업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찾아내게 한 연구는 전무하다. 더구나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는 문화 속에서 인간의 죽음 현상을 둘러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죽음에 관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현존하는 간호교육 과정 안에 죽음교육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지식, 기술, 자원들에 관한 의견 제공(von Gunten, 1996; Matzo, Sherman, Penn, & Ferrell, 2003),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정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Sherman, Lo, Egan, Grant, & Rhone, 2003)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불안감 저하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보인 연구(Mallory, 2003)가 있다. 또 다른 연구(Kao & Lusk, 1997)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서구의 죽음교육 관련 내용과 프로그램을 동양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양 문화권에 죽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국내외 죽음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죽음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효과적인 방법이 덜 개발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와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효율적 교육환경 조성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임종간호 교과목 및 적절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임종 현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플라쥬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된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여 임종간호 교과목 내용구성 및 개발뿐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플라쥬 작업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가를 표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자신들이 부여한 해석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이 경험한 죽음의 정의 및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풀라쥬 작업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술한 작품에 대한 해석 자료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 보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 간호대학 4학년 학생 42명으로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풀라쥬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출판을 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풀라쥬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자는 모두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4-5명으로 구성된 각 그룹은 그룹별로 1개의 풀라쥬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2004년 8월 2일부터 2004년 8월 29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성인간호학 실습 개시 전에 금번 실습을 통해 죽음이나 임종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후에 풀라쥬 작품으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주었다. 4주간의 실습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그룹별로 자신들이 실습을 통해 느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풀라쥬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함께 기술하도록 하였다. 작품 제작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별로 2-3시간 정도였다. 전지 외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구했으며 사진이나 신문, 잡지, 물감, 풀, 색종이, 파스텔 등이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총 10편의 풀라쥬 작품이 만들어졌으며 작품이 완성된 후 모든 그룹이 강의실에 모여 그룹별로 작품의 의미를 발표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풀라쥬 작품과 발표장면을 촬영하였고, 발표내용은 동시에 녹음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참여자의 발표내용을 녹취한 후 다년간 질적연구를 해

은 본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서면기록을 읽으면서 텍스트와 진술로 여러 번 되돌아가며 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풀라쥬 작업을 통해 표현된 작품과 죽음의 정의에 대한 발표내용을 함께 심사숙고하여 보면서 읽고, 필요시 녹음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작품과 비교하였다.
- 2) '죽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중요한 진술들을 파악하였다.
- 3) 진술들을 주요한 주제군, 주제, 범주들로 분류하였다.
- 4) 모든 주제군, 주제, 범주에 대한 설명적인 통합을 하였다.
- 5) 여러 맥락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의 판단에 의해 재진술과 형성된 의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6) 분석의 전 단계를 통해 도출된 과정과 의미의 설명적 기술을 포함하였다.
- 7)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풀라쥬 작품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통하여 오늘날 임종간호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점들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풀라쥬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에 관한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범주는 [죽음의 정의], [죽음에 대한 느낌], [죽음에 대한 태도] 등 3가지 범주의 17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죽음의 정의'는 참여자들이 그려보고자 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풀라쥬 작품을 통해 표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죽음에 대한 느낌'은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해 떠올린 느낌을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추출한 것이다. 세 번째 범주인 '죽음에 대한 태도'는 참여자들이 어떻게 죽음에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1. 풀라쥬 작품의 주제 및 상징의 의미

플라쥬 작품의 주제 및 상징의 의미는 <Table 1>과 같다.

참여자들이 표현한 플라쥬 작품을 통해 드러난 죽음에 대한 주제는 [죽음이란 준비된 자의 빛이다], [죽음은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모르는 주식과 같다], [죽음은 일방통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죽음은 누드다.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이다], [결국은 가야 하므로 이름값을 하며 살아보자!], [죽음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계단이다], [죽음은 살아있는 한 늘 곁에 존재하는 그림자이다] [죽음은 영원히 잠드는 것이며 잘 모른다],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후손을 남긴다],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에 관해 9개 그룹에서는 죽음의 정의에 관해, 1

개 그룹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그 주제로 삼았다. 죽음에 대한 주제는 준비된 자의 빛, 언제 올지 모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계단, 늘 곁에 존재하는 그림자, 영원히 잠드는, 인생의 한 부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등으로 기술되었다. 참여자들은 동일한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속에서 거의 유사한 학습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룹별로 죽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플라쥬 작업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통해 단순한 주제에 관해서도 그룹별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인쇄물이나 사진, 그림, 문자 등 이미 알려진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플라

<Table 1> Subjects and meanings of symbols about collage art works

Gr.	Subjects	Symbols	Meanings
1	준비된 자의 빛	일몰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	인생의 마지막 하느님 외에 나아가는 길,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희망
2	언제 오르내릴지 모르는 주가와 같음	주가 시계 빙하	(주가가 언제 오르내릴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 죽음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함
3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일방통행로 길의 시작과 끝	죽음은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탄생과 죽음이며 자연의 이치
4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	알몸 인간이 살아오면서 입는 옷 누드 옷을 벗는 것 죽음	탄생 가족, 친구, 일, 사랑, 기쁨, 분노 등 일상의 삶 삶의 옷을 벗는 일 부끄럽고 떨리나 벗고 나면 자유로움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에 가려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5	결국은 가야 함	가야해 멈춰진 시계	인간은 누구나 죽음, 삶의 유한성 삶의 시간이 정지됨, 죽음의 문
6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계단	출생 천국의 문 천국의 문 뒤	인생 계단의 시작이며 그 끝이 죽음임 죽음, 마지막 시점 미지의 세계, 사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임
7	늘 곁에 존재하는 그림자	그림자 살아있을 동안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죽음의 이미지, 어두운 의미가 아닌 항상 삶과 함께 하는 그림자 죽음 또한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함
8	영원히 잠드는 것	꽃 하트 모양 필름 문 보도, 차, 비행기, 배 의자 기하학적 무늬의 배경 눈 감은 사람 나누어진 몸체	삶의 아름다움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감 삶은 영화와 같음 삶과 죽음의 경계, 누구나 열어야 하는 문 죽음의 문을 천천히(도보) 또는 빠르게(교통사고) 여는 사람 죽기 전에 의자에 앉아 삶을 회상함 죽음은 누구도 잘 모름 죽음은 영원히 잠드는 것 사후에 분해되어 흩으로 변함
9	인생의 한 부분	인생의 한 부분 아기-노년기	죽음은 길고 긴 항해의 끝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고 죽으면서 후손을 남김
10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비-계곡-아지랑이로 증발 땅(자연)	인간의 생명도 순환하는 것 죽음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 Gr. = group

쥬 작업의 특성(Lim, Hong, & Lim, 2002)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작품에 드러나 상징의 의미로서, 1그룹의 참여자들은 일몰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서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희망이라고 보았다. 2그룹은 플라주의 배경으로 주가가 인쇄된 신문을 사용하면서 주가가 언제 오르내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시계를, 병하의 일부만 볼 수 있듯이 죽음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3그룹은 죽음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으로 보았고 그 상징으로서 일방통행로를 제시하였다. 길의 시작과 끝은, 탄생과 죽음이며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다고 하였다. 4그룹은 인간의 탄생을 알몸으로, 가족, 친구, 일, 사랑, 기쁨, 분노 등 일상의 삶을 인간이 살아오면서 입는 옷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죽음이란 삶의 옷을 벗는 일 즉, 누드가 되는 것으로서 옷을 벗으려면 부끄럽고 떨리나 벗고 나면 자유로울 것이며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에 가려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했다. 5그룹은 인간은 누구나 죽으며 삶이 유한하다고 보았고, 삶의 시간이 정지되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 상징으로서 멈춰진 시계를 대신하였다. 6그룹은 인생 계단의 시작이 출생이며 마지막 시점인 끝이 죽음이고 천국의 문을 통해 그 곳에 이른다고 보았다. 천국의 문 뒤 즉, 사후는 미지의 세계이고 사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7그룹은 죽음의 이미지를 어두운 의미가 아닌 항상 삶과 함께 하는, 살아있을 동안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묘사했다. 따라서 죽음 또한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그림자이다. 8그룹은 꽃, 하트 모양, 필름, 문, 보도, 차, 비행기, 배, 의자, 기하학적 무늬의 배경, 눈 감은 사람, 나누어진 몸체를 삶의 아름다움,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감, 삶은 영화와 같음, 삶과 죽음의 경계, 누구나 열어야 하는 문, 죽음의 문을 천천히(도보로) 또는 빠르게(교통사고로) 여는 사람, 죽기 전에 의자에 앉아 삶을 회상함, 죽음은 누구도 잘 모름, 죽음은 영원히 잠드는 것, 사후에 분해되어 흙으로 변하는 것 등으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였다. 9그룹은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길고 긴 항해의 끝이며 유아기-노년기에 이르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고 죽으면서 후손을 남기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10그룹은 비-계곡-아지랑이로 증발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순환하는 것이며 죽음을 통해 자연으로 돌

아가는 것으로서 땅(자연)을 그렸다.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일몰, 꽃, 병하, 길, 비, 계곡 등 자연의 모습으로 죽음을 묘사하고자 했으나, 일부에서는 시계, 필름, 비행기, 주가, 기하학적 무늬 등의 인공물을 동원해 묘사하였다. 그 밖에 작품 활동의 주요 주제로 죽음의 본질에 대해 그려냈으나 일부에서는 죽음의 시기나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주요 주제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주제를 끌어낸 것이야말로 일상적 수준에서는 이질적이고 조화되지 않는 재료들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전체적 구조를 이끌어내는 전통적 개념을 뒤엎는 새로운 창작품으로서의 플라주의 특성(Kim, 1998)이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2. 죽음의 정의

죽음 정의에 관한 그룹별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플라주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정의에 관한 주제는 희망, 삶의 끝, 숙명, 미지, 자연의 이치, 삶의 일부, 출생 시처럼 돌아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푸른 잎처럼 희망을 뜻 한다’, ‘일몰은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는데’,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의미’, ‘죽음하면 영원히 잠드는 것’,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 길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이다’,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계곡 강을 이루어 결국은 바다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생명도 순환하는 것’, ‘죽음 역시 살아있는 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있는 것’,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일들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미소 즐거움, 희망을 입고 자신의 알몸을 가린다 하지만 죽음은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 등이다.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난 죽음의 정의는 희망, 빛, 아름다움, 시들지 않음 같은 밝은 의미와 끝, 마지막, 일몰, 낭떠러지 같은 어두운 이미지가 교차하였다. 한편에서는 그러한 명암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숙명이고, 삶의 일부이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주의적 사고가 내재해 있었다. 죽음을 희망, 삶의 끝, 자연의 이치, 삶의 일부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예술작품을 통해 죽

<Table 2> [Definitions of death]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잘 준비한다면 각자의 마음에 죽음이 “빛”이 되어 내려 올 것이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푸른 잎처럼 희망을 뜻 한다. 죽음의 뒤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로서 말 그대로 천국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고	빛, 희망, 천국, 아름다운 세상, 새로운 인생의 시작	희망
일몰은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는데, 사랑하는 모든 대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흔히들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방통행이란 묘사로 죽음을 표현, 여러 가지 길의 종류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나가는 길 돌아오는 길 구불구불 험난한 길 등 다양하지만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의미, 죽음의 뒤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로서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 혼자 혹은 함께 오르막과 내리막 평탄한 길 험한 길을 걸으며 우리는 끝을 향해 서서히 걸어간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 갯난아기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시점에 천국의 문이 있다고 생각, 죽음하면 영원히 잠드는 것이라고 생각, 멈춰진 시계처럼 우리의 시간은 정지되고	일몰, 인생의 마지막, 끝, 계단의 끝, 다시 돌아올 없는 길, 영원히 잠드는 것, 마지막 삶, 낭떠러지, 멈춰짐, 정지됨	삶의 끝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그림자 하면 어두운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분명 모두는 걸어아하는 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의 문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 누구나 열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 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의미로 가야만 하는 우리의 유한성을 표시하는 단어로 가야해라고 표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	어두움 모두 가야 함, 누구나 죽음, 존재의 유한성	숙명
그 길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의 뒤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로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이 천국의 문을 열었을 때 알 수 있는 것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미지,	미지
여러 개의 시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이다, 아기로 태어나 아동 청년 성인 노년기를 거쳐 성장하다가 죽음을 맞지만 후손을 남긴다, 우리들을 받아주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계곡 강을 이루어 결국은 바다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듯이 사람의 생명도 순환하는 것	자연의 이치임, 순환하는 것임, 자연으로 돌아감, 후손을 남김	자연의 이치
어두운 의미의 그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림자의 이미지로 생각,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지만 상황에 따라 그림자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그림자 역시 존재하며 죽음 역시 살아있는 한 우리 곁에 존재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전혀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삶의 그림자, 존재의 동반자, 함께 함, 인생의 한 부분, 항상 우리 곁에 존재 함	삶의 일부
시작인 탄생과 맞닿아 있는 그 길, 삶과의 대극이 아닌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	삶의 연장임	
죽음은 누드다, 인간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난다 처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살아온 만큼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된다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일들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미소 즐거움, 희망을 입고 자신의 알몸을 가린다 하지만 죽음은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	누드, 탄생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	출생시 처럼 돌아감

음을 정의한 Kim, Jo와 Kim(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 죽음에 대한 느낌

죽음에 대한 느낌에 관한 그룹별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죽음에 대한 느낌에 관한 주제는 두려움, 자유로움, 편안함, 분해됨, 무지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허무하다’,

‘삶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올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므로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공포로 인식한다’, ‘죽음의 진정한 모습은 모르고 일부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 ‘죽은 뒤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에 가리어졌던 자신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두렵고 공포가 될 수 있다’, ‘죽음은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입니다 누드를 처음 겪을 때는 두렵고 부끄럽고 떨립니다. 자신의 알몸을 다 보여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벗고

<Table 3> [Feelings about the death]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허무하다	허무, 무기력	
삶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간만 지나올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므로 죽음을 공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모든 대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공포로 인식한다. 죽음의 진정한 모습은 모르고 일부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죽음을 공포로만 보는데, 죽음이란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에 가리어졌던 자신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두렵고 공포가 될 수 있다	두려움, 공포, 슬픔, 고통	두려움
죽음은 여태껏 입어왔던 옷들을 다 벗는 일입니다 누드를 처음 짚을 때는 두렵고 부끄럽고 떨립니다.	부끄러움, 두렵고, 떨림	
자신의 알몸을 다 보여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벗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 자유로워짐,	자유로움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 뒤에는 아주 자유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이 존재할 것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이 올 것임,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	편안함
죽음 후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무덤에서 사람이 흙으로 변하면서 몸체가 부분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팔 다리 눈 등의 부분으로 나누어 붙었다.	사후에는 분해될 것임	분해됨
죽음을 공포로만 보는데 병하의 꼭대기처럼 진정한 모습은 모르고, 일부만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무지함, 평소에 느끼지 못함	무지함
주가가 인쇄되어 있는 신문지를 바탕으로 한 이유는 주식이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모름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뒤에는 아주 자유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이 존재할 것’, ‘죽음 후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흙으로 변하면서 몸체가 부분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죽음을 공포로만 보는데 병하의 꼭대기처럼 진정한 모습은 모르고 일부만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주가가 인쇄되어 있는 신문지를 바탕으로 한 이유는 주식이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등이다.

죽음에 대한 느낌 또한 죽음의 정의에서와 유사하게 두려움, 공포, 허무함 같은 부정적 느낌과 자유로움, 편안함, 안락함 같은 긍정적 느낌이 함께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이 떠올린 죽음에 대한 감정은 죽음을 밝은, 또는 어두운 이미지로 보았는가에 따라 느낌에도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본다.

플라주 기법은 직감이나 감각 등의 비합리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작품을 제작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치료효과가 있고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표출되고 자기인식과 더불어 자신을 개방시키는 심상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이라고 하였다(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임종 또는 말기 환자를 간호해야 할 간호학생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부정

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플라주 기법을 이용해서 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그룹별 내용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주제는 평소에 영혼 준비를 잘 해야 함, 전인간호를 해야 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 삶을 정리해야 함, 최선을 다 해 살아야 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잘 준비한다면 각자의 마음에 죽음이 “빛”이 되어 내려 올 것이다’, ‘사후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선 평소에 영혼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겪을 땐 임상적 처치를 받고, 말기 환자인 경우 죽음을 두려움 없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정서적 안정) 호스피스를 받으며, 영적인 준비를 위해선 끊임없는 기도와 회생이 필요하며,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임종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어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진정한 죽음을 알아야 진정한 전인 간호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길의 끝(죽음)을 어렵게 생각지도 말며 부정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연스러움에 편안한 맘으로 죽음에 대응

<Table 4> [Attitudes about the death and the dying patients]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Theme Clusters	Themes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잘 준비한다면 각자의 마음에 죽음이 “빛”이 되어 내려 올 것이다. 사후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선 평소에 영혼준비를 해야 한다	영혼을 위해 잘 준비해야 함	평소에 영혼 준비를 잘 해야 함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적으로 통증을 겪을 땐 임상적 처치를 받고, 둘째, 말기 환자인 경우 죽음을 두려움 없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정서적 안정) 호스피스를 받으며, 셋째, 영적인 준비를 위해선 끊임없는 기도과 회생이 필요하며, 끝으로 (은 가족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그림의 의미는)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임종환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어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함, 영적 준비가 필요함,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함	전인간호를 해야 함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진정한 죽음을 알아야 진정한 전인 간호가 가능할 것이다	많이 알아야 함	
그 길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모두는 걸어야하는 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의 끝을 어렵게 생각지도 말며 부정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연스러움에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도울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해보야 하는 물음이라 생각, 무한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며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밑에 보면 의자도 있는데 이는 죽음 전에 의자에 앉아서 삶을 회상한다고 생각	존재의 의미에 대해 숙고함, 삶을 회상하고 정리함	삶을 정리해야 함
일회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았노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내 이름을 걸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보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여 후회 없이 살아서 마지막에 이르러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천국의 문을 열수 있기를 바라는 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각자가 선택해야 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함, 열심히 노력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삶	최선을 다 해 살아야 함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해보야’, ‘무한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며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일회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았노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내 이름을 걸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보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여 후회 없이 살아서 마지막에 이르러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천국의 문을 열수 있기를 바라는 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각자가 선택해야 함’ 등이다.

참여자들은 플라쥬 작품을 제작하면서 죽음에 대해 숙고하고 전문가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대상자로 하여금 가능한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도 평소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말기 및 임종간호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결국에는 부가적으로 간호학생 자신의 삶을 돌

아보게 하였고 그럼으로써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타인의 삶 또한 값지게 여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플라쥬 작업은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삶의 진지성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제군을 중심으로 플라쥬 작품을 통한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은 플라쥬 작품 활동을 통하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 전공을 선택했음에도 이전에는 이처럼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숙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모든 인간이 간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죽음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환자들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간호대상자가 존엄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자신도 평소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임종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은 간호실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임종환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완충시키고 대상자와 가족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간호학생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강조하는 간호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종간호교과목 구성과 학습방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플라쥬 작품을 통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찾아낸 죽음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했다. 나아가서 간호대학생 또는 간호사의 입장에서 임종환자나 말기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나 그 가족의 심리적, 정신적 및 영적 간호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호스피스간호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플라쥬 작품을 통하여 표현된 죽음의 의미와 본질을 간호학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플라쥬 작품과 이에 관해 해석한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는 크게 [죽음의 정의], [죽음에 대한 느낌], [죽음에 대한 태도]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죽음의 정의]에 따른 주제군은 “희망, 삶의 끝, 숙명, 미지, 자연의 이치, 삶의 일부, 출생 시처럼 돌아감”이며, [죽음에 대한 느낌]에 따른 주제군은 “두려움, 자유로움, 편안함, 분해됨, 무지함”이고, [죽음에 대한 태도]의 주제군은 “평소에 영혼 준비를 잘 해야 함, 전인간호를 해야 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함, 삶을 정리해야 함, 최선을 다 해 살아야 함” 등으로 분류되어 총 3개의 범주와 17가지의 주제 63가지의 주제군으로 분류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플라쥬 작품을 제작해 가면서 죽음이 무엇일가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그에 따르는 느낌도 표현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말기 또는 임종환자의 간호방법에 대해 고려하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전문가답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자연스런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대상자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기위하여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하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임종간호실습을 마친 후 그룹별 플라쥬 작업을 바탕으로 오늘날 임종간호교육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관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말기 및 임종간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라쥬 작품 구성이라는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해 학생들 자신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정의하기 어려운 주제에 관한 의미를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된 교과과정 콘텐츠 개발 시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것을 제안한다.
2. 다른 간호학 학습과정에서도 플라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eak, S. H., Lee, M. A., & Kim, I. H. (2001). A study of perceptual change towards death of nursing students.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hospice care. *J Korean Fundam Nurs*, 8(3), 153-169.
- Ha, S. Y. (1994). *A Study of Image Conversion by Introducing Collage*.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H. J. (2002).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method as a transformer from virtual and indirect experience to real and direct experience in knowledge-based socie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1), 155-182.
- Hur, S. (1999). Rethinking the meaning of teaching and learning: Making new school cultur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7(1), 31-43.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 J. Nurs. Stud.*, 34(6), 438-443.

- Kim, J. H. (1998). Collage: A Way to Reading Ntozake Shange's Sassafrass, Cypress, & Indigo. *J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4(3), 649-670.
- Kim, M. A., & Lim, S. H. (2002). A Q-study on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Keimyung Nurs Sci*, 6(1), 43-54.
- Kim, M. J., Jo, K. H., & Kim, Y. K. (2005). Contents Related to End-of Life Care in Nursing Curriculum: Q 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Fundam Nurs*, 12(1), 48-57.
- Kim, S. H. (2002). An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education. *The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Studies*, 15, 205-223.
- Kim, Y. K., Jo, K. H., & Kim, M. J. (2005).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Art Works. *J Korean Adult Nurs*, 17(4), 602-611.
- 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1997). *Theory and Applications of Art Therapy*, Daegu, Donga Munhwasa.
- Lee, H. W. (2003). How to define "Popular art" in the era of mass media. *Esthetics*, 35, 319-378.
- Lee, K. S. (2001). A study of death experience. *J Korean Psych Nurs*, 10(3), 368-375.
- Lim, M. H., Hong, J. K., & Lim, S. H. (2002). Effects of Collage Program on the Behavior and Psychology of ADHD. *J Emotional Disturbances & Learning Disabilities*, 18(1), 127-154.
-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Prof Nurs*, 19(5), 305-312.
- Matzo, M. L., Sherman, D. W., Penn, B., & Ferrell, B. R. (2003). The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ELNEC) experience. *Nurse Educ*, 28(6), 266-270.
- Matzo, M. L., Sherman, D. W., Lo, K., Egan, K. A., Grant, M., & Rhome, A. (2003). Strategies for teaching loss, grief, and bereavement. *Nurse Educ*, 28(2), 71-76.
- Park, C. S., & Kim, S. J. (1996). Type of death attitude for Family members of cancer patients. *J Korean Fundam Nurs*, 3(2), 153-169.
- Park, P. N. (2001). A study of death attitude for christianity. *Hospice education study*, 5, 55-75.
- Park, S. J. (1996). *A disposition for death and degre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of Jou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 Seo, K. H. (2004). The perspectives and conceptions about good instructional practice: An interview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J Curriculum Studies*, 22(4), 165-187.
- von Gunten, C. F. (1996). Why I do what do. In L. Blank (Ed.), *Caring for the dying: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physician competency-educational resource and personal narratives*. Philadelphi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 Yun, Y. J. (1999). A subjectivity of death for health care managers. *J Korean Adult Nurs*, 11(2), 205-214.

- Abstract -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Collage Art Works

Kim, Yeong-Kyeong*Jo, Kae-Hwa**

Purpos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eath seen by nursing students through collage art works. **Method:** The qualitative research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method and the content analysis were used. The text were collage and related essays written by 42 senior nursing students about the impressions on death through collage art works.

Result: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nd seventeen themes. The three categories include 「definitions of death」, 「feelings about the death」, and 「attitudes about the death and the dying patients」.

Conclusion: It is shown that participants

recognize their position as nursing student, although they may not escape the fear of death, will learn to deal with death, and the dying in a suitably professional manner. In this respect, the study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the students in learn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are needed for hospice nursing care more effectivel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llage, Death